국제 · 지역연구 14권 3호 2005 가을 pp. 1-39

중국 FDI 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조 현 준 |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개혁 · 개방' 이래 중국이 대량으로 유치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중국의 투자, 생산, 생산성 및 대외무역의 증대를 촉진시켰고, 외자기업은 중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주도해 왔다. 오늘날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전통적인 국제투자이론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제분업구도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거점과 구매거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선진적인 기술까지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FDI를 자국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에서 오는 수요독점자적(monopsonistic) 이점 등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자의 과도한 유입은 거시경제의 불안정, 국내자원의 유휴화, 경제구조의 불균형 심화, 대외의존도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제 중국은 FDI를 적정규모로 유치하면서 거시경제 운용의 안정화를 이루고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잠식을 제어하는 동시에, FDI의 기술이전효과를 최대화하고 자주적인 산업발전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힘든 과제에 당면해 있다.

주제어 : 중국경제, 외자정책, 직접투자, FDI, 세계화, 생산거점, 국제분업, 기술이전

* 이 논문은 2004년 제2학기 건국대학교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 론

중국은 '개혁 · 개방' 이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로 약칭)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FDI의 유입량은 빠르게 증가하여 오늘날은 FDI의 '블랙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대량의 FDI를 유치하고 있다. 그 동안 FDI는 중국경제를 발전시킨 주요 원동력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자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변화, 발전해 왔다.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FDI 정책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이다. 특히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전면화 되고 글로벌화가 촉진됨에 따라, 중국은 외자유치에 있어서 중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FDI 유치정책이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고, 최근에 당면한 기회와 도전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의 조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등은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외자정책은 유치국 정부가 외자 활동에 간여하는 목표 및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그 목표는 일정한 정책수단을 통해 외자활동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의 필요에 부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자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주로 정책의 목표, 수단, 유형(장려, 제한, 금지 등), 효과, 자유화 등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한다. 유치국 외자정책의 목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목적을 포함하지만, 목표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경제목표에 두어진다. 이 경제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국민경제의 일반균형, 취업증대, 인력자본개발, 투자증대, 수출증대, 기술이전, 외채감소 등을 지향한다(劉力 · 許民, 2002). 본 연구는 중국의 FDI 정책을 연구하되, 정책적 목표를 집중 조명하면서 기타 문제들(정책의 수단, 유형, 효과, 자유화 등)은 정책목표를 분석하기 위한 참고적 설명으로 다루었다. 즉 본 연구는 중국의 FDI 정책의 목표들이 정책의 도입 및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 과제들을 주로 검토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중화권의 선행연구 문헌 등 2차 자료와 일부 1차 자료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 다소 차별화되는 몇 가지 연구관점을 취하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흐름에 참여해야 했던 중국의 정치경제적 필연성을 조명하면서 중국의 FDI 유치정책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흐름과의 연계논리를 부각시켰다. 또한 '이행경제(transitional economy)'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중국의 FDI 유치배경을 분석할 때에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이 어떻게 중국의 외자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했다. 최근의 FDI 유치정책 변화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2003년의 16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았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흐름하에 출현한 새로운 국제분업구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소위 'dual hub'(생산거점 및 시장거점) 개념을 인용하여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분업구도의 출현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경제의 투자, 생산, 수출, 생산성, 기술도입 등에 대한 FDI의 기여도를 최신통계를 이용해 분석했다. 끝으로 향후 FDI 유치정책의 과제 부분에서는 소위 '시장과 시장의 교환' 및 '경쟁과 기술의 교환'이라는 최신의 방침과 '시장영토론'이라는 새로운 개념, '신형공업화'라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등장한 사실에 주의하고, 이러한 최신의 방침과 개념들이 어떻게 FDI 정책과 연계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구조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균형화, 대외의존도 심화, 기타 부작용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FDI 유치와 관련된 최근의 국내이슈를 검토했다.

II. 중국의 FDI 유치정책 등장의 배경과 목표

중국은 1976년까지 약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 시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피폐하고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혁・개방을 실행하기 시작했다.[1] 李榮明(2001)에 따르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된

1.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국내 권력투쟁, 국제관계의 변화 등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전에 소위 '죽(竹)의 장막'으로 불리던 쇄국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어 경제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되는 추세에서 만일 중국이 쇄국정책을 지속한다면 낙후된 경제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계시장과 서방 중심의 세계경제체계 속으로 다시 진입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중국은 새로운 국가발전 노선을 설정했는데, 즉 경제건설이라는 중심 목표를 위해 개혁·개방과 '4개 기본원칙'이라는 2대(二大) 정책을 결정했다.[2] 이 개혁·개방 노선하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FDI 유치정책이다. 환언하면, 중국의 FDI 유치정책은 경제부흥 내지 경제건설이라는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 관점, 즉 경제부흥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FDI 정책이 등장한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에 중국은 국내의 자본과 기술이 매우 부족했다. 당시 중국의 재정체제는 수입원의 부족, 재정적자의 누증, 중앙의 재정통제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금융체제는 국내 자금을 저축화 내지 투자자금화로 유도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내자(內資)만으로 경제건설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3] 따라서 외자도입이 필요했으나, 당시 중국의 대외신인도나 기채(起債) 능력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대외차관을 도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중국은 대외차관이나 간접투자의 도입으로 외채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기피했던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중국은 FDI 위주의 외자도입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중국지도부가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지 않고서는 정권에 대한 인민의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고, 경제재건의 유일한 출로는 개혁·개방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2. 이는 소위 '1개 중심, 2개 기본점(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을 가리키며, '4개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을 가리킨다.

3. 1978년 2월 당시 국무원 총리 화궈펑(華國鋒)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1978~85년 소요 투자액이 과거 28년간의 공업투자액에 상당한다고 했고, 부총리 리셴넨(李先念)은 1978년 9월 19일 일본 방문 중에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그 규모가 약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오용석, 2004 참고).

필요했다. 한편,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그 원인에 대해 胡景岩(2003)은 '자력갱생' 위주의 기술도입 정책, 플랜트 설비 등 하드웨어 위주의 기술도입, 정부와 국유기업 외의 기술도입 창구 결핍, 기술도입용 외화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부족한 자본・기술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은 FDI 유치가 불가피했고, 레닌의 '국가자본주의론', 즉 사회주의국가의 외자이용 및 FDI 유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에 근거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盧曉勇, 2004).[5]

둘째, 자원분배의 합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FDI 이용이 필요했다.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와 소위 '大而全, 小而全'(조직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려는) 관행, 지방보호주의, 자급자족체계 등으로 인해 투자의 중복과 과잉, 산업조직의 과도한 분산과 난립 및 규모의 불경제, 기업조직의 방만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했다.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자원이 가치규율에 따라 투입산출효율이 보다 높은 곳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가치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제도의 일환으로서 FDI의 도입이 필요했다. 중국은 FDI가 자원의 국제적 이동과 국제시장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이용해, 국내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추구했다.

셋째, 국민경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효율성이 심각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FDI가 필요했다. 과거 계획경제시기에 산업생산 전반을 담당한 국유기업은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정부에 의해 분배되는 원자재를 투입해 생산한 제품을 정부계획가격에 따라 공급하여, 경영자주권이 없고 손익을 책임지지 않으며 국가의 '큰 솥밥(大鍋飯)'을 먹던 정부 부

---

4. 이는 중국 외자의 형태 중 유독 FDI에 강력한 우대정책(super-national treatment)을 부여하고, 대외차관이나 간접투자 형태의 외자도입은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Prasad and Wei, 2005 참고).

5.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물질 기초는 반드시 발달된 자본주의경제이어야 하지만 레닌 집권 당시의 러시아는 경제가 낙후된 농업국가였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레닌은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러시아의 생산력을 빠르게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체제(무산계급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체제)의 건설을 가속화 한다는 논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1930년대에 외국인투자와 기술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속물에 불과했다. 즉 과거에 국유기업들은 이윤동기를 결핍하고 생산성이나 효율을 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기업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촉진수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으로 약칭)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즉 중국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이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외자기업이 기업개혁의 모델 내지 학습과 모방의 대상이 되고, 외자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이 중국의 전통적 기업제도와 개념을 변화시키는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했다. 특히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은 국유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장려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넷째, 국내산업구조의 조정과 개선(upgrade)을 위해 FDI가 필요했다. 중국은 계획경제시기에 구소련의 공업화 모델에 따라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을 장기간 시행한 결과, 소비재공업이 낙후돼 일용 소비품과 식품의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에 빠지고 산업구조의 불균형, 내수부진, 요소이용효율 저하,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楊世雄, 2001; 李明星, 2003 참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FDI가 필요했다. 전통적인 국제투자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사양산업을 개도국으로 이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고, 개도국은 FDI를 통해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유치하여 이를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盧曉勇(2004)은 20세기 후반 이래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다국적기업의 발전, 경제 글로벌화 등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수평적 국제분업과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됨에 따라, 중국이 국제분업을 이용해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은 FDI의 적극적 이용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국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FDI가 필요했다. 아담 스미스의 노동분업론과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국부의 증가)을 위해서는 노동분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각국은 자원부존 여건에 따라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국제무역을 통해 타국의 비교우위제품과 교환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국부 증가를 이룰 수 있다. 중국은 방대한 영

토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이로부터 저비용 생산기지의 이점과 같은 비교우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교우위를 개발하고 자국제품의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FDI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저임 노동력의 공급능력에서 지니는 비교우위를 이용해 FDI를 유치함으로써, 인력자본을 개발하고 취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투자자 본국으로 역수입하거나 혹은 투자자가 확보한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여섯째,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 및 경영노하우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FDI가 필요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한 국가(사회)의 제도적(정치, 법률, 종교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superstructure)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의해 결정되고, 하부구조의 핵심인 경제구조는 생산력(productive forces)의 발전단계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다(McMurtyr, 1978). 이러한 사상에 근거해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생산력을 개발하려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등소평(鄧小平)은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라고 주장했고, 개혁・개방의 목표인 소위 '4개 현대화' 속에는 과학기술의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술도입 수요는 매우 컸으며, 중국은 새로운 기술도입 경로로 FDI를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FDI가 상당히 효과적인 기술도입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외자기업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면 설계, 제조기술, 경영기법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술도입자금(또는 외화)의 부족에서 오는 제약을 받지 않으며, 외자기업 간의 경쟁을 이용해 선진기술의 중국 내 투입을 유도할 수 있고, 내・외자기업 간의 합작을 장려하여 내자기업(본토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II. FDI 유치정책의 전개와 FDI 추이

중국의 FDI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 글로벌화' 추세하에서 자본 등 경제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했고, 전술한 필요성과 목적을 띠고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개혁・개방이 점차 확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FDI 정책은 국제분업, 비교우위, 무역・투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리에 근거하여 발전해 왔다. 그 동안 FDI 정책의 변화는 국내의 경제상황과 경제개혁 및 산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 왔고,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남부지역 시찰시의 담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WTO 가입 등이 FDI 정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 시점(時點)에 근거하여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FDI 정책과 FDI 추이를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魏艾 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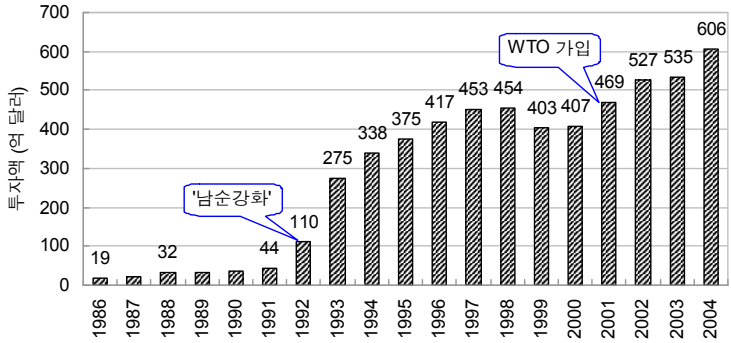
1. 시작 및 초기성장단계(1979~1991년)

1980년대 초반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입법이 미흡했고 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중국의 기초시설이 낙후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시험적으로 투자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사이에는 상당한 연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8년과 1987년을 비교할 때, 대외 상품무역은 206억 달러에서 827억 달러로, FDI를 포함한 각종 외자도입 총액은 20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증가했다(『中國統計摘要』, 2004).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정부는 FDI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기초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1988년 말부터 약 3년간 중국이 정치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리정돈(治理整頓)'[6]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개혁·개방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로 인해 서방이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함에 따라 중국의 리스크(country risk)가 높아졌고, 이는 외국인투자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의 정세가 차츰 안정되면서 1991년에 FDI 유치액은 4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대외차관 위주여서 1986~1990년에 그 비중은 평균 65%에 달했다.

그림 1. 중국의 FDI 유치액 추이



자료: 『中國統計摘要』, 2005.

6. 1988년 9월 中共(중국공산당) 13期 3中全會(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치리정돈 정책은 본래 개혁·개방 10년 동안 누적된 경제상의 제 문제들을 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출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과열과 급속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투자의 취소 및 재정·금융 긴축을 실시하고 중앙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89년 6월의 천안문(天安門)사태 이후에 이 정책은 체제안정 및 보수파의 세력강화 수단으로써 활용되기도 하였다.

2. 고속성장 및 조정단계(1992~1997년)

치리정돈 기간에 중국은 천안문사태나 동유럽 공산권 및 소련의 몰락 등으로 안팎에서 격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사회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팽배해져 변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변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을 전면적인 시장화에서 찾았던 것 같다. 지도부는 1992년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하여 전면적인 시장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경제노선을 포기하고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7]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해 우대정책을 폭넓게 시행하기 시작했고, 1994년부터는 인민폐의 이중환율 단일화와 33.3% 평가절하, 외국인용 외화태환권(FEC)[8] 폐지 등 환율개혁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크게 높였다. 동시에 중국은 기존에 개방한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의 지역범위를 연강(沿江)・연변(沿邊, 변경)지역으로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대외개방 구도를 형성했다.

한편,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중국의 경제・산업구조 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 중국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제8차 5개년 계획기간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중국은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 정책의 방향을 이전의 '지역경사(傾斜)'에서 '산업경사'로 전환했다. 1980년대에 중국은 대외개방지역을 '점(點)에서 선(線)으로', 다시 '선(線)에서 면(面)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경사적인 산업발전과 외자유치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역발전이 극도로 불균형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8차 5개년 기간에 점차 지역경사적인 정책을 폐지하고 특정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경사적 정책으로 전환했다(中華經濟硏究院,

---

7. 같은 해 10월 14全大會(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체'로의 전환과 그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8. 과거 중국은 내국인용 RMB(인민폐)와 외국인용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환율을 다르게 적용했고, 외국인은 FEC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2000). 국무원은 1990년대 중기부터 농업과 기초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1994년 3월에 반포한 <90년대 국가산업정책강요(綱要)>에서는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업을 5대 지주(支柱)산업(leading sectors, 성장주도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1995년 6월에 국무원은 <외국인투자의 방향을 지도하는 잠정 규정>을 반포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장려, 허용, 제한 및 금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더욱 규범화하고 노동집약적 경공업, 가전, 화공 등 업종의 중복투자 및 설비과잉 문제에 대응했다.

1996년에 중국정부는 외자정책을 조정했는데 그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을 조정했다. 국내기업이 외자기업과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중국정부는 1996년 4월부터 외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조세우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둘째, '가공무역 보증금 대장(臺帳: standing book)제도'를 시범적으로 보급했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가공무역 방식을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포탈함을 방지하면서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 7월부터 실시했다. 이러한 조정의 영향으로 FDI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외자유치의 양적 수량을 중시하던 데서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출현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기술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어, 고신(高新)기술과 기초시설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9]

3. FDI 정책의 재조정 및 개방심화 단계(1998~2001년)

대외개방의 진전으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9. 예를 들면, 기술집약형 업종에 속하는 의약제조업에 대한 투자(계약기준) 비중은 1996년 1.7%에서 1997년 2.8%로 상승했고, 일반기계제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2% → 6.2%로, 전자·IT설비제조업의 비중은 6.3% → 10.9%로 각각 상승했고, 교통·운수·창고·우편·통신 등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비중도 1.6%에서 5.1%로 상승했다(中華經濟硏究院, 2000).

경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상당히 노출되는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경제 전반 및 외자유치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달러화에 고정(peg)된 인민폐 환율의 안정 유지로 인해 인민폐 가치는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투자환경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발생국의 대중(對中)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 시기에 중국정부는 인민폐의 상대적인 과대평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및 연해지역의 토지비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 국면을 만회해야 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개선 및 '서부대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하여 외자유치의 방향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던' 태도로부터 정책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외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수정했다.[10] 1998년 1월 국무원은 외자유치 둔화 현상에 대응하여 외자정책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가하고,[11] 대다수 외자기업의 기계설비 수입에 대한 감면세 혜택을 회복시켰다. 또한 1999년 6월에 국무원은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시행 방법>을 비준하여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개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어서 2000년 9월에 국무원은 새로운 외자유치정책 및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자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장려하여 R&D센터의 설립・운영, 기술의 도입 및 혁신 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히 광범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둘째, 서부대개발 정책에 의거하여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했다. 셋째, 장차 WTO 가입에 대비하여 점차적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이 분야의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시작했다. 넷째,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외자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하고,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했으며 기타 외자유치에 불리한 관련 정책과 규정 등을 폐지하거나 조정했다. 다섯째, 외

---

10. 대표적인 예로, 1995년에 처음으로 발표했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해 1998년 1월부터 시행했다.

11.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魏艾 외(2003: 20-22) 참조.

국인투자 분야 및 투자방식의 확대와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이 M&A(인수합병), 지분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경쟁업종의 중소형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

4. 외자유치의 글로벌화 발전단계(2002년 이후)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정보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경제 글로벌화가 현저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말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WTO 가입과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치, 2010년 상해 EXPO 유치 등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정비를 크게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세계의 경제・기술자원은 투자효율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되기 마련이므로(兪可平, 2001), 저비용 생산기지와 시장잠재력의 이점을 지닌 중국은 FDI 유치에서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이전 방식과 속도의 변화 또한 중국의 외자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론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도국에 이전하는 기술은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는 기술이나 설비였고, 따라서 개도국들이 만약 외부기술에만 의존한다면 기술낙후 상태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제조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IT기술 응용의 심화, 교통・통신수단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제분업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제품수명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수평적 분업체계 형성으로 인하여 기업규모 성장을 위해 세계적 시장규모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동일 업종 내 상호경쟁업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을 최대화해 최단시간 내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저비용 경쟁력을 지닌 중국은 외자의 대량 유치와 동시에, 최신의 기술과 제조설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江小涓, 2003).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개방 확대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상, 시장개방을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화 흐름에서 오는 상술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화 추세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경제・산업구조 조정 및 첨단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이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FDI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말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글로벌화 추세에서 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자이용의 역점을 기술 도입, 산업구조 고도화, 국제경쟁력 증강과 동시에 국제분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魏艾 외, 2003).

2003년 10월에 개최된 16기 3중전회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몇 가지 정책을 결정했다. 李君如(2003)는[12]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과 <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 관련 건의>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새롭게 제시된 정책은 특히 공유제와 비공유제 간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규정했다. 張文魁(2003)는[13] 그 변화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즉 국유기업의 소유권 개혁과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現代産權(재산권)制度'의 본격적인 도입, 공유・사유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소유제'의 대대적인 발전, 사유자본 진출영역의 전방위적인 확대, 사유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등이다. 한편 헌법의 수정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을 최초로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낳고 있다.

첫째, 외국기업의 M&A 투자를 적극 활용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함으로써 다수의 부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은행권의 국유기업 관련 부실채권 감소, 산업구조의 조정 및 고도화, 국유기업 종업원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전에 중국정부는 소위 '抓大放

12. 리쥔루(李君如)는 중국공산당 간부 당원의 교육기관인 中共中央黨校의 부교장(부총장)이다.

13. 장원쿠이(張文魁)는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기업연구소 부소장이다.

小'(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은 풀어놓는) 방침에 따라,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성장주도산업 등의 업종과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일반 경쟁업종이나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영화를 허용했었다(조현준, 1996).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국유기업의 다수지분을 외국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룽룽(李榮融) 국가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장관급)은 2003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극소수의 기업만이 국유기업으로 남을 것이고 중국 전역에서 M&A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14]

둘째, 외국인이 M&A, 지분참여, 주식매입, 투자기금을 통한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유 내지 공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주식제를 주체로 하는 '혼합소유제'를 크게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혼합소유제 경제의 비중은 GDP의 40% 내외이지만, 주식제 개혁의 진전으로 5~10년 후에 그 비중은 80% 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張卓元, 2003). 이를 통해 중국은 유망한 중・대형 국유기업에 공유・사유자본을 고도로 집중시켜 이들을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과 업종, 소유제를 초월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기업들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거의 모든 종류의 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을 허용하여 내・외자기업 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시장경쟁 요소의 점진적인 도입과 확산은 그 동안 중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다만 기간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 종래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부문은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이 부진했다. 종래 다국적기업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일부 생산항목을 산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국 내에 공급사슬 내지 산업사슬 발전이 촉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양허한 이상, 중국은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본토기업과의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국유기업이나 금융・유통・통신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충격 내지 개혁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내・외자

14. "China accelerates privatization, continuing shift from Doctrine," *Washington Post*, November 12, 2003 참조.

기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상류(기술개발)-중류(조립생산)-하류(마케팅)를 포괄하는 공급사슬의 발전, 성장주도산업과 관련산업 간의 산업사슬 내지 산업클러스터 형성,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기업의 편입 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내·외자기업 간의 차별대우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실시해야 한다. WTO 가입 시 중국은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 준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종래 외자기업의 불만사항이던 부품 현지화, 외환수지 균형, 생산계획 보고 등의 의무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2002년 4월에 또다시 개정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장려분야를 186개에서 262개로 확대하고, 제한분야를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했다.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개방 계획을 구체화했다. 2004년 7월에는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15] 한편, 중국정부는 장차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철폐하고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외자기업의 우대혜택은 조만간에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IV. FDI 유치의 정책적 성과

1. 양적 성장과 그 배경

UNCTAD 통계에 따르면 1979~2003년에 중국의 FDI 유치 누계는 약 5,01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1조 5,540억 달러), 영국(6,720억 달러),

15. 장려류의 경우 3,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제한류는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독일(5,446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준이다. 2003년 말 현재 FDI 유치 잔액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의 경우는 35.6%로서 세계 평균(22.9%)이나 개도국 평균(31.4%), 한국의 경우(7.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중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FDI의 거대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2001년 이후 전 세계의 FDI는 계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유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FDI 유치액에 대한 공식 집계에는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 IMF, 세계은행 등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1/4 정도가 실제로는 중국본토의 자본이며, 외국인투자에 부여되는 우대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국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중국에 돌아오는 '우회투자(round-tripping)'의 경우로 보고 있다(UNCTAD, 2004: 18).[16]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부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FDI에 흡인력을 발휘하는 원인은 단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 개혁・개방의 심화 및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상술한 '우회투자' 등의 요인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밖에 화교경제권의 긴밀한 연계, 중국 내 지방 간의 FDI 유치경쟁, 최근 중국의 경기과열 및 인민폐 평가절상을 예상한 투기적 성격의 FDI 증가 등의 요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국제분업구도의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FDI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세계적인 성장동력 및 저비용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WTO 가입으로 세계수출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재배치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연간 FDI 유치액을 산업별로 구분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대 후반의 60% 미만에서 2002~04년에 연평균 70%로 상승한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中國統計摘要』, 2005). 국제분업구도상의 중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

16. 예를 들면 1995~2000년 중에 OECD 국가들의 對中 직접투자는 총 393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중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유입액이 770억 달러로 되어 있어서 양자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OECD, 2003: 39-40).

하여, 일본정부는 2001년 『통상백서』에서 그간 일본을 중심으로 했던 동아시아의 '기러기형' 행렬의 경제구조는 이미 붕괴되었고, 이는 자국 내에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를 포괄하고 있는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성장원천이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면 최근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구미의 다수 기업들이 '중국 내 아웃소싱'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인 생산분업 및 공급사슬(supply chain) 구축 과정에서 저비용 생산기지인 중국을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여 중저급 생산설비를 중국에 이전해 중국 내 생산업체(조인트벤처 포함)에 생산활동을 일임하고, 자신은 고부가가치 산출활동에 전념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Hale(2003)은 중국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분업체계나 국제공급사슬에서 '듀얼 허브(dual hub)'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았다.[17] 즉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상품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를 위한 제조거점(manufacturing hub)이 되었고 고부가가치의 자본집약형 상품(부품 포함)에서는 전 세계가 중국을 위한 제조거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이 구매거점(purchasing hub)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업구조로 인해, 중국의 수출 붐은 공산품의 수입 붐과 외국인투자 기회의 확대를 유발하게 되며, 중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고 있다.

2. 중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기여

중국은 대국이면서 높은 외자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UNCTAD가 2003년

---

17.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은 총수입의 20%를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일본 은행 대출의 약 1/3을 역내 국가에 제공했으나, 이후 일본은 역내 국가에 대한 자금공여를 줄였으며 현재 역내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이 역내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1990년의 6.8%에서 현재는 근 20%에 달하며, 중국의 FDI에서 역내 국가가 점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의 24% 수준에서 1999년에 85%로 까지 상승하였다.

각국의 연간 고정자본투자에서 점하는 FDI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12.4%로 세계 평균(7.5%)과 개도국 평균(10.0%), 한국(2.1%)에 비해 훨씬 높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중심으로 FDI를 유치하고 있어, 실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FDI의 기여도가 크다. 2002~04년 중국의 FDI 유치액 중 제조업 비중은 평균 70%에 달한다.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아웃소싱 확대 및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 중국에서 연간 매출 500만 위안(元) 이상인 제조업체는 약 21만 9,400여 개에 달하는데, 이중 외자기업은 약 4만 2,700여 개로 그 비중이 19.5%에 달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생산 비중은 28.8%, 매출 비중은 30.8%, 납세 비중은 16.6%, 종업원수 비중은 23.7%에 달했다(『中國統計摘要』, 2005). 같은 해 중국의 전체 상품수출에서 외자기업의 수출액이 점하는 비중은 57.1%에 달했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FDI가 유치국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 즉 투자자금 보충, 취업기회 창출, 인력자본 개발, 제품수출능력 향상 등에 있어서 중국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에 박승록(2002)은 중국 경제성장의 수요구조를 분석할 때 2001년에 경제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가 2.2%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무역액이 중국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직접기여도는 아직은 작으며, FDI의 보다 큰 공헌은 중국 내 고정자본형성에 있다고 보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중국의 FDI 정책목표 중에 수출증대와 국제시장 진출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를 정책적 성과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 중국 경제성장의 수요구조(경상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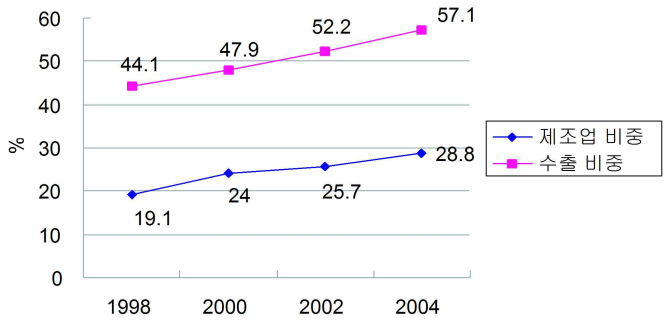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최종소비 기여도	자본형성 기여도	국내수요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2000	61.1	36.4	97.5	2.5
2001	59.8	38.0	97.8	2.2
2002	58.2	39.2	97.4	2.6
2003	55.4	42.4	97.8	2.2
2004	53.6	43.9	97.5	2.5

자료: 『中國統計摘要』, 2005.

중요한 것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래 외자기업의 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은 줄곧 전국의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외자기업의 기여도가 빠르게 상승해 왔다(그림 2 참조). 제조업 생산 및 상품수출에서 외자기업의 기여도가 급상승하면서 중국의 수출상품구조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중국의 총수출에서 기계・전기전자제품의 점유 비중은 1994년 26.4% → 1999년 39.5% → 2004년 54.5%로, 고신(高新)기술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7.9% → 13.0% → 27.9%로 빠르게 상승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의 해당 연도『통계공보』). 이는 중국에 대한 FDI가 1980년대에는 주로 노동집약산업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갈수록 자본・기술 집약산업에 집중되는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04년에 외자기업의 수출액 중 고신기술제품의 비중은 87.3%에 달했는데, 이는 내자기업의 해당제품 수출액의 6.9배에 달한다(張威, 2005).

그림 2. 중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 외자기업의 비중



주: 제조업 생산액은 국영기업(국유기업과 함께 국유지분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포함) 및 일정 규모(연간매출 500만 위안) 이상의 비국유기업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中國統計摘要』, 해당 연도 판.

외자기업에 의한 해외수출이 빠르게 증대되는 추세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조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추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적인 유통망을 활용해 중국에서 상품을 조달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

하는 추세이다. 이미 2001년에 다국적 유통기업은 중국 수출액의 12%(약 3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을 조달해 세계시장에 판매했다(『日本經濟新聞』, 2002). 예컨대 월마트는 2002년 2월에 세계조달본부를 홍콩에서 션전(深圳)으로 이전했고, 2007년에 월마트의 중국상품 구매액은 250~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新華社』, 2002).

외자기업은 전술했듯이 생산, 수출 등에서 국유기업 등 다른 소유제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산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1995~2002년 기간에 국유기업의 고용률이 연평균 9%씩 감소했으면서도 생산성 증가율은 약 13%에 그친 반면에, 외자기업의 고용률은 연평균 9%씩 증가했으면서도 생산성 증가율이 17%에 달했다. 또한 McGuckin(2004)의 연구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생산성은 국유기업에 비해 1995년에 4.5배, 2002년에 4.3배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때, 그 동안 중국의 산업생산성 향상은 외자기업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기술확산(technology spillovers) 효과는 개도국이 FDI를 유치하는 주요 목적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1980년대부터 소위 "(중국의) 시장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교환한다"(以市場換技術)는 기본전략을 구사해 왔다. 즉 시장의 개방을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술을 도입해 왔다. 특히 중국의 인력자본과 기술인력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FDI는 기술·경영 노하우의 도입을 위한 유용한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Borensztein et al., 1995).

중국 상무부 외자국(外資司) 국장 후징옌(胡景岩)에 따르면, 기술도입의 경로는 다양하지만 장기간의 실천경험을 통해 기술도입의 수량, 규모, 수준, 효과 등 제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입방식으로 증명된 것은 외자기업을 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胡景岩, 2003: 77-83). 1950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기술도입(구매) 계약 건수와 금액은 총 52,677건에 1,794억 달러에 달하고 1998~2002년 동안에는 연평균 6,051건에 156억 달러의 기술도입을 계약했다. 그러나 그 동안 중국의 대외경제교류 및 국제화 수준이 부단히 확대되어 온 만큼 실제적인 기술도입 규모는 상술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기술도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FDI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도입하는 설비에 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단지 기술구매계약만을 보더라도 외자기업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2년 중국의 전체 기술구매계약은 6,072건, 174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외자기업에 의한 것이 3,471건, 131억 달러로서 그 비중은 건수에서 57%, 금액에서 75%에 달한다.

FDI의 기술확산효과는 일반적으로 유치국의 FDI에 대한 개방도가 향상되면서 증가하고, 그 개방도는 일반적으로 산업 내 외자의 비중을 이용해 평가한다. 외자 비중이 클수록 본토기업이 외국기업의 기술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져, 시범・모방효과(demonstration and imitation effects)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외자의 진입으로 조성된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s)도 본토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낳는다(Görg and Greenaway, 2001 참고). 기술확산효과는 또한 내・외자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클수록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FDI 유치국 내지 본토기업의 인적 자본이나 기술흡수 역량이 열악하다면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로 인해 기술확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토기업의 기술흡수능력이 이러한 '발전의 문턱(threshold of development)' 수준을 넘는다면 외자기업의 기술도입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확산효과는 커지게 된다(Blomström and Kokko, 2003 참고). 嚴兵(2005)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기 이래 중국 본토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쟁능력은 이미 '발전의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외자기업을 통한 기술확산효과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본토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경쟁압력으로 인해 외자기업이 다시 신기술을 도입해 다음 단계의 기술확산을 이끄는 긍정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들어 외자기업의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는 특히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의 도입 측면에서 현저해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최신의 선진적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江小涓(2003)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1997년 13%에서 2001년 42%로 증가했고, 2002년 1~9월 중에는 80%로 높아졌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신상품의 최초 출시 시장으로 중국을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 연구개발(R&D) 기지를 건설하

는 데 적극적이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설립한 R&D센터는 약 690개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 R&D센터의 연간 R&D자금은 1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누계기준으로 1997년에 109개였던 연구개발센터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증세를 시현해 2003년 420개, 2004년 690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R&D 신규 프로젝트 투자 건수(허가기준)도 2000년 100건에서 2002년 227건, 2004년 1,39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이문형, 2005 참고). 이들 R&D센터는 전자・IT, 생물제약, 정밀화공, 수송설비 등 자본・기술집약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상항목도 신개발형 및 최첨단형 콘텐츠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와 달리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투입하는 주된 원인은 전술했듯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가속화로 새롭게 형성된 국제분업구도 속에서 중국경제의 '듀얼 허브' 역할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수평적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다국적기업 간에 제조비용 절감 및 시장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적인 제조거점과 구매거점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확대와 동시에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선진기술을 유치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자국의 저비용 경쟁력과 시장 잠재력이 새로운 국제분업구도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제분업체계에서 결코 피동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분업체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江小涓, 2003). 최근 중국이 소위 '走出去'(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동안 중국은 FDI 유치의 정책적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증대, 인력자본 개발, 투자증대, 수출증대, 기술이전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DI를 통해 국민경제의 일반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V. FDI 촉진정책의 지속과 과제

1. 금후의 FDI 촉진정책의 방향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가 유지했던 FDI 촉진정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버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2004년 9월 샤먼(厦門)에서 개최된 국제투자포럼에서 금후에도 FDI 장려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버시라이 부장은 금후 FDI의 장려 부문을 몇 가지로 제시했다. 즉 외국인투자에 의한 중국 내 아웃소싱 사업체 설립,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R&D센터・수출조달센터 설치, 외자기업의 원부자재 현지화 및 산업사슬 확대, 수출형 외자기업의 설립, 고기술・고부가가치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 등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中國經濟時報, 2004).[18]

이러한 장려부문은 2004년 11월에 또다시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장려, 제한, 금지 분야로 구분되는 데 장려항목이 257개로서 제한항목(78개), 금지항목(35개)보다 훨씬 많다. <목록>에서 장려항목에 포함된 것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IT, BT, NT, ET, ST 등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이 <목록> 외에 별도로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2003년 6월 2일 제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19]

---

18. 버시라이 부장은 "FDI를 장려하여 경제의 공동번영을 추진하자"(鼓勵外商直接投資, 推動經濟共同繁榮) 라는 제하의 연설을 했다.

19. 첨단기술 투자장려 목록은 전자・IT, 소프트웨어, ST, 전기기계 통합, BT 및 의료기기, 신소재,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원자력응용, 현대 농업 등 11개 분야

둘째로 농업, 영농시설 · 장비, 에너지개발, 교통 · 물류 · 발전 인프라 개발, 환경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셋째, <목록>의 장려 · 제한 ·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가분야에서 생산품을 100% 수출하는 투자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넷째, <목록>은 WTO 가입시의 개방 약속을 반영하여 유통, 금융, 통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양허 내용을 담음으로써, 개정 전인 2002년 4월의 <목록>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장려항목 중 많은 부분이 서부지역 개발과 연계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이 <목록> 외에 별도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비교우위산업 목록>(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동북 3성 지역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장려하고 있다. 과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던 동북지역 개발사업은 2003년 12월 국무원에 '동부지역 등 재래공업기지 진흥 지도소조(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領導小組)'가 설치된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20] 일본의 日中東北開發協會(2004)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진흥사업의 원동력을 이 지역의 개방확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금후 이 지역의 재래공장 및 국유기업의 리스트럭처링, M&A, 민영화 사업에 대한 FDI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한 투자 장려부문을 고려할 때, 금후의 FDI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의 초점은 국제분업구도상의 중국의 '듀얼 허브' 역할 중시, WTO 가입에 따른 투자자유화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형 공업화' 추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균형 발전의 추구 등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국제분업구도 속에서 자국이 지닌 듀얼 허브(제조거점과 구매거점)의 역할을 발전시키려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계속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역할은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으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최소 7% 이상으로 계획하여 고성장 지속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과 설비의 이중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악화되어 실업률과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등의 불안

에 91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이 소조가 공식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inaeast.gov.cn) 참고.

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고성장은 고투입을 요구하고, 따라서 FDI의 증대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고성장 지속으로 중국의 시장잠재력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시장 그룹인 BRICs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계 제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등의 압력에 직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으므로, 중국의 시장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의 무역자유화 및 투자자유화 추세는 중국에 대한 FDI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중국은 WTO 가입 시의 개방확대 양허 약속에 따라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각종 장벽과 제한, 불투명성 등을 점차 철폐・완화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제도의 자유화와 원활화(facilitation)를 가져와, 외국인투자의 증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WTO 가입 후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FDI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을 이용해 자국의 시장을 육성하고 동시에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상품 구매와 수출을 늘려 중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소위 '시장으로 시장을 교환한다'(以市場換市場)는 전략이다(楊正位, 2005 참고). 이는 FDI의 기술도입효과에 주목하여 제시해 온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以市場換技術)한다는 전략과 상당히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시장영토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일국의 영토는 종래의 지역 개념에서 점차 시장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시장의 수용능력과 자원배치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장영토'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특히 중국은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국의 비교우위적인 자원으로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寥進中, 2003). 또한 중국의 시장을 육성・개발하고 그 시장용량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FDI 유치는 하나의 '지름길'이며, FDI를 통해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시장경제 관념과 시장조직・경영시스템 및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큰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 면에서도 FDI 유치를 촉진시키는 요

인이 있다.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원쟈바오(溫家寶) 등 제4세대 지도부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강조하여 지역발전격차 완화를 위한 서부대개발, 기반시설 및 에너지 등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및 기간산업 강화,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 투자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래 이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에 힘입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미 및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자본, 기술 등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는 소위 '신형 공업화' 정책을 제시하여,[21]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동시적이고 복합적인 발전, 정보화와 공업화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구하면서 산업구조의 조정 및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22] 이 정책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도 자금력과 기술력, 경영노하우를 지닌 외국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R&D센터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듀얼 허브' 기능을 중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책적으로 유치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종래에 중국은 FDI를 통한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더해 '경쟁으로 기술을 교환'(以競爭換技術)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양상과 내・외자기업 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외자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이전 수준을 주동적으로 높이게 하는 동시에 본토

---

21. 이 정책은 제4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2002년 11월의 16全大會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22. 李明星(2003)에 따르면, 신형 공업화 전략은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복합적 발전, 도시경제와 농촌경제의 복합적 발전, 동부지역경제와 중서부지역경제의 복합적 발전, 국내개혁과 대외개방의 유기적 결합, 정보화와 공업화의 유기적 결합, 경제의 고성장과 그 지속가능성의 유기적 결합 등을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전략은 노동집약, 자본집약, 첨단기술 등 모든 산업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고성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진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기술이전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嚴兵(2005)은 이전에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통제할 수 있어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기업에 선진기술 도입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WTO 가입 후에는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해 이러한 협상카드를 잃게 되었으므로 종래의 '以市場換技術' 전략의 효력은 사라졌으며 대신에 '以競爭換技術'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以市場換技術' 정책이 여전히 중국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6월에 중국정부는 1994년에 제정했던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을 개정해 새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생산기업의 신규투자항목 건설시 제품 R&D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5년 2월에 <이동통신 시스템 및 단말기 투자항목 심사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하면서, 신규투자 시에 반드시 R&D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단말기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단말기용 칩세트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개발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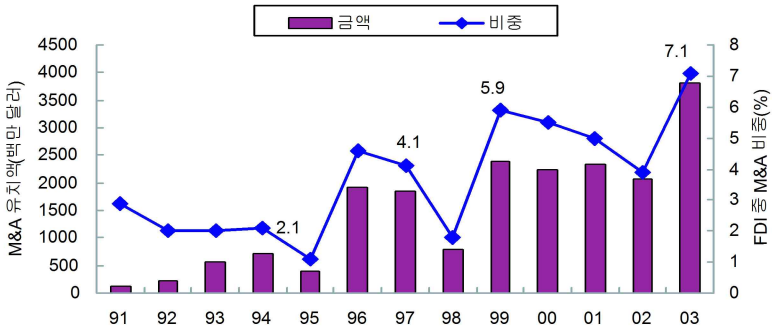
한편, 현재 구조조정의 핵심 대상은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국유기업들인데, 전술했듯이 최근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외국기업의 M&A 투자를 크게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UNCTAD에 따르면 2003년에 전세계 M&A 형태 FDI는 총 4,500여 건에 달했는데, 최다 대상국은 미국(722건)이고, 중국은 영국(459건), 독일(296건)에 이어 제4위의 대상국(214건)이다. M&A 금액으로 보면 중국은 약 38억 달러가 이루어져 세계에서 제18위의 대상국이고, 선진국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홍콩, 브라질에 이어 제4위의 대상국이다(UNCTAD, 2004: 6, 411-415 참고). 현재 전 세계 FDI의 약 80%는 M&A 방식인 데 비해, 중국이 유치한 FDI에서 M&A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금후 M&A 방식의 FDI 비중이 상승할 여지는 매우 크다(그림 3 참조). KOTRA(2004)

---

23. 철강산업의 신규투자에도 유사한 요구조건이 부여되고 있는데, 실례로 중국정부는 한국의 포스코(POSCO)에게 중국 내 신규공장 건설을 허가(미확정)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포스코가 2004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부른 中國' 외국투자 골라 받는다」. 『동아일보』. 2005년 4월 2일 참고).

는 금후 외국인의 중국 내 M&A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내지 구조조정 가속화, M&A 관련 법규 제정 등 투자환경의 제도적 개선, WTO 가입에 따른 각 산업의 외자진입 정책 제한 완화 등 외에도 중국 우량기업들이 글로벌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는 점, 다국적기업들이 국제분업구조상의 중국의 역할과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등에 주의하고 있다.

그림 3. 중국의 FDI 중 M&A 규모와 비중



자료 : UNCTAD(2004) 및 중국 상무부 통계 재구성.

2. 과제와 도전

중국이 유치하는 FDI는 자본・기술 및 성장동력의 유입을 동반하고 생산성 향상, 고용・세수・수출의 증대, 산업구조 조정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FDI가 그 유치국에 순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FDI 도입의 폐해에 관한 논쟁이 이슈가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는 2004년 3월에 '중국 외자이용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의 요록(紀要)은 FDI 유치상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 관점으로 개괄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국내자본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므로 자

금을 보충하기 위한 외자도입 논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FDI는 본질적으로 외채에 속하는 것이므로 FDI를 외채 통계에 포함시킨 외채총량을 경제안전의 범위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간접적인 경제손익을 종합해 계산한 외자이용의 순이익은 플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넷째, FDI 유치사업의 중점은 설비도입보다는 도입기술의 소화 및 기술혁신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보편적으로 출현한 '國退洋進'(중국의 토종산업은 후퇴하고 외국기업 주도의 산업은 전진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개방정책'과 '(외국인투자)우대정책'을 구분하고 우대정책을 개방정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순히 외자만을 추구하여 FDI의 요구에 맞추어 국내 산업구조를 조정하지 말고 중국 자신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자를 이용해야 한다(『中國經濟時報』, 2004 참고).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楊中俠(2004)은 "외자도입의 南美化 우려"라는 논문에서 FDI의 대량유입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서 1) 내・외자기업 간의 법인세율 차별 적용에 따른 불공정 경쟁, 2)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GDP 대비 FDI 유치누계 비중이 40% 초과)에 따른 대외통상마찰 및 투자이윤의 해외유출 증대 위험, 3)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환율불안과 인플레압력 및 자산거품화 야기, 4) 외국인의 독자(獨資) 및 지배지분 확보 기업의 급증에 따른 산업 독점화, 5) 외자기업의 유통영역 집중투자에 의한 시장 선점과 이에 따른 토종기업의 약화, 6) FDI에 의한 기술확산효과의 한계와 본토기업의 자주개발 혁신능력 상실 위험, 7) 이익 최대화를 지향하는 다국적기업들의 노동집약형・자원소모형・환경오염유발형 산업 이전으로 인한 중국 생태환경 악화 등을 지적했다.

상술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은 현재 중국이 FDI 유입과 관련해 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것은 주로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구조, 내・외자기업 간의 불공정경쟁, 국민경제의 불균형 발전, 경제안보 문제, 자주적 개발능력의 미발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FDI의 과도한 유입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유치하는 FDI의 과부족 정도나 적정규모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영향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henery-Strout의 3격차이론(three-gap theory)에 따

르면 후진국 내지 개도국의 외자 수요량은 주로 저축격차와 외환격차에 의해 결정되고, 이 두 격차는 주로 경제성장 계획치에 의해 결정된다.[24] 즉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수요와 개발수입에 필요한 외환수요를 국내저축과 보유외환으로 충당하지 못해 그 부족분을 외자로 유치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계획하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만큼 FDI 수요가 적지 않지만, 국내저축과 외환보유고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잉이 우려될 정도이다. 현재 저축률은 40%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고 투자율을 상회하여, 투자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유휴자금이 존재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의 저축률은 투자율을 매년 약 2~3% 포인트 정도 상회하며(<표 2> 참조), 금융기관의 수신잔고가 여신잔고를 크게 상회하여 그 차액이 현재 연간 4,000~5,000억 위안(元)에 달한다. 이런 상태에서 FDI의 과도한 유입은 국내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을 낳게 된다. 중국의 FDI 유치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은 Ⅳ장에서 전술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한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FDI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원인으로는 중국 금융산업의 미발달과 저효율로 인해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수급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국내자금이 투자로 잘 전환되지 못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25] 이와 관련해 陳飛翔 외(2004)는 현재 중국의 국내자금은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FDI가 갈수록 국내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커지고 있으므로, 금후 FDI 정책은 국내자본의 육성을 촉진하고 내·외자 간의 경쟁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

24. 저축격차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투자액에 저축액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외환격차란 개발수입에 필요한 외환부족액을 가리키며, 흡수능력격차란 기반시설과 기초산업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개도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축격차와 외환격차로 인해 외자를 도입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흡수능력격차에 의해 개발이 지장을 받게 된다. 외자도입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효율은 빠르게 하락하여 외자활용이 비효율적이 된다.

25. 1990년대 말에 국유은행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책대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유은행의 시장화 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 국유은행의 신용분배 시스템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특히 대출금리에 대한 정부의 통제(2004년 10월까지 지속)로 인해 은행들이 민영부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대출위험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대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공공부문이나 국유부문으로 유입되고 있다(Prasad and Wei, 2005: 18).

<표 2> 중국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저축률	41.8	41.3	39.9	38.9	40.2	41.8	44.6	46.3
투자율	38.0	37.4	37.1	36.4	38.0	39.2	42.4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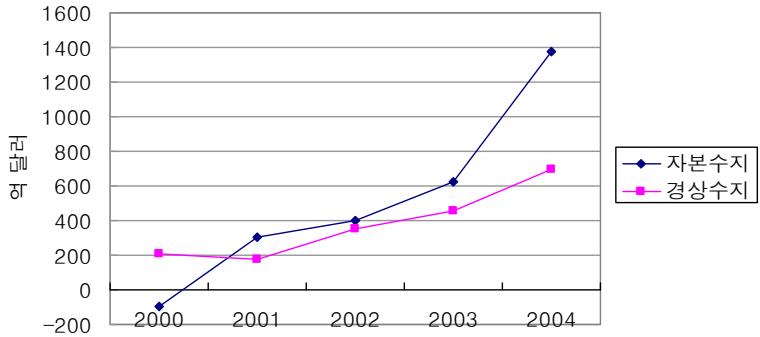
자료: 『中國統計摘要』. 2005.

한편, 외환보유고는 2005년 3월 말 현재 6,590억 달러에 달해 세계 2위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적정 외환보유 수준인 3개월분의 수입액(약 1,500억 달러[26])은 물론 여기에 외채(2005년 3월 말 현재 2,334억 달러)를 합한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다.[27] 199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은 계속되는 무역흑자와 FDI 등 외화자본의 지속적인 유입 증대로 인해 국제수지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해 왔고 특히 2001년부터는 경상수지, 자본수지에서 모두 흑자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더욱이 중국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이므로, 부동산과 같은 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투기적 핫머니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수지의 장기적인 불균형은 환율, 통화 등의 정책운용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특히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는 상태에서 FDI를 포함한 외자유입의 과도한 증대는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낳기 쉽다. 물론 중국정부는 그동안 불태화(sterilization)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플레 압력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불태화 정책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금융긴축과 투자억제를 실시하는 것, 주요 불태화 수단을 단기채권에서 장기 중앙은행채권으로 대체하는 것, 단기의 미국채 구입을 늘리고 있는 것 등은 불태화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Prasad and Wei, 2005).

26. 중국의 2005년도 상품수입액을 6,000억 달러, 월평균 수입액을 500억 달러로 예상한 경우이다.

27. 단, 중국의 통화량과 대비한 외환보유고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에 GDP 대비 M2(총통화) 비율은 1.9에 달했고, 외환보유고는 M2의 약 20% 수준에 불과했다(Prasad and Wei, 2005 참고).

그림 4. 중국의 국제수지 변화 추이



주: 2004년 수치는 Global Insight의 추계치임.
자료: Global Insight, 2005: 24.

외자의 과도한 유입에 따라 통화량이 증대되면 효율보다는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발전을 조장하기 쉽다. 이런 기업들은 일부 부문의 경기 과열 내지 거품경기를 형성하며 원자재, 에너지, 숙련노동력 및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여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 압력과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대출을 긴축하게 되면, 원자재 및 에너지산업은 자금난에 빠져 그 공급능력이 더욱 위축되기 쉽다(盧曉勇, 2004). 또한 외자기업의 빠른 증대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급증은 임금상승을 촉진시킴으로써 비용견인형(cost-push) 인플레를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원자재 수급난과 전력난, 경기과열, 인플레 압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동남부 연해지역의 외자기업들은 구인난과 빠른 임금상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신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여 농업과 기반산업, 첨단산업의 동시 전면적인 발전과 중서부지역의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FDI가 주로 일반 제조업과 소비재 생산 및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서 경제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FDI를 통한 기술도입 및 기술확산 효과와 함께 본토산업의 육성을 추구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투자 목적은 자신의 독점적 우위와 글로벌화된 공급사슬과 유통망을 이용하여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다. 다국적기

업은 자금과 기술을 여러 국가에 배치함으로써 분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에 일부의 생산공정과 생산품목만을 배치한다. 이는 FDI 유치를 통해 국내에 보다 완비된 산업사슬체계와 본토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에 설치한 자회사는 해외 본부의 안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자국경제 통제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산업의 대외의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면, 최근 다국적기업의 대중(對中) 전략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는 과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던 '중국전략'을 장기 이익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전략'으로 전환하고 있고, 둘째는 원래 중국과 외국 쌍방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협력형' 전략으로부터 일방의 주도를 꾀하는 '통제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서석흥, 2004). 만일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전략에 중국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앞으로도 외국과의 자동차생산 합작사업을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국시장은 외국기업의 수중에 들어가고 본토기업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채 외국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며 본토산업의 해외의존도(종속 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그 독점적 우위나 시장점유율,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외투자를 통한 시장의 선점과 동시에 잠재적인 경쟁기업의 도태를 추구하므로, 이는 중국 본토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그 동안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 다수의 토종상품 브랜드가 도태된 반면에 다국적기업 브랜드의 시장독점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등의 국가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 중 9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외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盧曉勇, 2004).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이 FDI의 폐해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FDI에 대한 의존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자본 축적기능이 약화되고 국민경제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문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금후 정책과제의 초점은 어떻게 이 의존구조로부터 조속히 벗어나면서 국내자본 축적을 강화할 것인지에 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제를 놓고 중국정부가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방향으로서 陳飛翔 외(2004)는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고 있다.

첫째, 현재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 FDI 우대정책의 결정・집행 권한을 중앙집중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지방당국에 의한 FDI 유치경쟁구조를 불식시키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정경쟁의 시장환경 속에서 FDI를 유치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외자기업에 진정한 내국민대우를 하여 기술력과 효율을 겸비한 다국적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등 우대정책을 조속히 폐지함으로써 내자기업의 역차별 문제 내지 불공정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자금도입보다는 지식도입 위주로의 전략적 전환을 통해 기술혁신과 제도이식에 중점을 두고, FDI 우대정책을 기술이전과 제도시범 측면을 장려하는 데에 집중하며, 외자에 의한 국내기업 M&A를 장려함으로써 선진적인 기업경영방식의 국내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투자효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유효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영역은 독점구조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영역(기초시설 건설 등의 분야)으로 FDI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이미 FDI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독점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오늘날 중국의 FDI 유치정책은 중국경제의 성장방식과 구조의 변화는 물론, 국제경제질서나 국제분업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외자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국이면서도 외국인투자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자국경제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FDI 정책은 전통적인 국제투자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제분업구도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거점과 구매거점으로 기능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경쟁적으로

투자진출하면서 선진적인 기술까지 투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FDI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고성장 지속을 중시하는 정책, 첨단기술 유치정책, WTO 가입 이후의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 등은 FDI 유입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중국정부가 FDI를 자국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비교우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점이다. 중국은 후발 이점(latecomer advantage) 뿐만 아니라 방대한 영토와 인구로부터 오는 대국의 이점과 거대한 시장잠재력에서 오는 수요독점자적 이점(monopsonistic advantage)을 지니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종래의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전략에 더해 '시장으로 시장을 교환'하고 '경쟁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외국기업의 M&A 투자를 허용하는 등 FDI 유치전략이 보다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정부는 '신형 공업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FDI와 외자기업이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구조는 거시경제 운용의 불안정, 국내자원의 유휴화, 경제구조의 불균형 심화, 국부의 유출, 토종산업의 약화, 대외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제 중국은 어떻게 FDI를 적정규모로 유치하면서 국내자본의 축적과 거시경제 운용의 안정을 이루고 외국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 잠식을 제어하는 동시에 FDI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를 최대화하고 자주적인 산업발전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하는 힘든 과제에 당면해 있다.

참고문헌

박승록. 2002.『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pp. 70-72.

서석흥. 2004.「중국의 (신)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의 주요 쟁점 분석」.『현대중국연

구』. 서울: 현대중국학회. 제6집 1호. pp. 72-76.
오용석. 2004.『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 pp. 92-100.
이문형. 2005.「중국의 세계 R&D 거점화에 대비해야」.『e-KIET 산업경제정보』. 제258호(2005-19).
조현준. 1996.『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보고 96-08. pp. 13-19, 60-76.
魏艾・范錦明・趙顯埈. 2003.『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3-02. pp. 12-24.
KOTRA. 2004.『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M&A 현황 및 전망』. 서울. 기획조사 04-16. pp. 8-27.
日本經濟新聞. 2002.「中國 ― モノを賣る(下)」(6월 20일).
日中東北開發協會. 2004.「東北旧工業基地振興にグロバルな力を結集へ」.『日中經協ジャーナル』(*JC Economic Journal*). 東京: 日中經濟協會. No. 131(12월호). pp. 36-37.
江小涓・楊聖明・憑雷. 2003.『中國對外經貿理論前沿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2-55.
寥進中. 2003.『市場領土論』. 長沙: 湖南大學出版社. pp. 3-33.
盧曉勇. 2004.『國際投資理論與發達國家對華直接投資』. 北京: 科學出版社. pp. 44-50, 144-164.
楊世雄. 2001.『馬克思的經濟哲學 ― 中共的社會主義市場經濟』.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pp. 171-175.
楊正位. 2005.「國際産業轉移與我國的對策」.『求是』. 北京. 第3期.
楊中俠. 2004. 「外資引進“拉美化”之憂」.『國際金融報』. 北京. 7월 9일자 第6面.
嚴兵. 2005.「“以競爭換技術”戰略與外資溢出效應」.『財務經濟』. 北京. 第1期.
王洛林. 1997.『中國外商投資報告: 外商投資的行業分布』.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pp. 1-5.
劉力・許民. 2002.『入世後的中國外資政策』.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pp. 39-77.
俞可平. 2001.『全球化時代的馬克思主義』. 台北新店: 創世文化事業出版社. pp. i-vi.
李君如. 2003. 「深化經濟體制改革的歷史性決策」.『中國青年報』. 北京. 10월 29일자.
李明星. 2003.『中國經濟戰略』.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pp. 41-45, 161-166.
李榮明. 2001.『全球化時代下臺灣和兩岸關係』. 台北: 生智出版社. pp. 2-9.
張文魁. 2003.「<決定>對理順公有制與非公有制關係的突破」.『瞭望』. 北京. 第42期.
張威. 2005.「引領外貿第三次歷史跨越」.『世界知識』. 北京. 第1,480期(2005-05). pp. 50-53.
張卓元. 2003.「以完善爲主體推進市場經濟體制建設」.『半月談』. 北京. 第20期.
陳飛翔・王溪若・郭英. 2004.「經濟增長、外商直接投資與政府選擇」.『財務經濟』. 北京. 第9期. pp. 32-34.
胡景岩. 2003.『論開放市場與引進技術』. 北京: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pp. 74-97.

新華社. 2002.「沃爾瑪 — 零售霸主全球採購總部遷深圳引入關注」. 9월 30일자.
中國國家統計局.『中國統計年鑑』. 北京. 2001~04년 판.
中國國家統計局.『中國統計摘要』. 北京. 2004~05년 판.
中國國家統計局.「統計公報」. 北京. 1995~2004년 판.
中國經濟時報. 2004.「外資領域的新一輪論爭」. 北京. 10월 20일자. 第1面.
中國商務部. 2003.「鼓勵外商投資高新技術産業目錄」.『中國投資指南』. 北京. 6월 2일 공포. www.fdi.gov.cn
中國商務部. 2004.「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中國投資指南』. 北京. 11월 20일 공포. www.fdi.gov.cn.
中國商務部. 2004.「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中國投資指南』. 北京. 7월 23일 공포. www.fdi.gov.cn.
中華經濟研究院. 2000.『外商直接投資對大陸本土産業發展之影響』. 台北. pp. 9-24.
振興東北網. www.chinaeast.gov.cn.

Blomström, Magnus and Kokko, Ari. 2003. "Human Capital and Inward FDI." *Working Paper 167*. Stockholm: EIJS(The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www.hhs.se/eijs/wp/167.pdf.

Borensztein, Eduardo, De Gregorio, Jose, and Lee, Jong-Wha. 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 (June). pp. 115-35.

Global Insight. 2005. *Quareterly Reiviw and Outlook: Asia-Pacific*. 2nd Quarter.

Görg, Holger and Greenaway, David. 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ra-Industry Spillovers." prepared for the UNECE/EBRD Expert Meeting — Financing for Development, Geneva, 3 December 2001.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 www.unece.org/ead/misc/ffd2001/greenaway.doc.

Hale, David and Hale, Lyric H. 2003.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pp. 36-53.

McMurtry, John. 1978. *The Structure of Marx's World-View.*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58-60, 188-190.

McGuckin, Robert and Spiegelman, Matthew. 2004. "Restructuring China's Industrial Sector: Productivity and Jobs in China, Kitakyushu: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Vol. 2004-13. pp.6-11.

OECD. 2003.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China*. pp. 39-40.

Prasad, Eswar and Wei, Shang-Jin. 2005. "The Chinese Approach to Capital Inflows: Patterns and Possible Explanations." *IMF working paper* (WP/05/79). pp. 9-2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2004.*

China's FDI Policy Goals: Its Development, Outcomes, and Challenges

Cho Hyun-Ju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nkuk University

During the past two decades, China has attracted a large amount of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which have facilitated growth of investment, output, productivity and overseas trade of Chinese industries. Today, China's FDI policy even acts a factor to change some traditional theori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Especially, as China plays the role of "dual hub" of manufacturing and purchasing in the global supply chain or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multi-national companies become increasingly competing to invest into China, even committing advanced technologies to the investment. China now actively utilizes its relative advantages including monopsonistic one derived from the potential of the domestic market, so that it might attract FDI to be more favorable. Recently, however, excessiv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cluding FDI has brought forth some undesirable side effects such as macro-economic instability, idle cost of domestic capital, growing imbalance of economic structure, and excessive overseas dependence. From now 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find a solution that not only brings in an adequate amount of FDI so as not only to stabilize macro-economic operation, but also to control the market-stealing effects of FDI, while at the same time maximizing its effects of technology transfer so as to enhance the capability to develop Chinese industries independently.

Key Words: Chinese Economy, FDI Policy, Globalizatio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Manufacturing Hub, Technology Transfer

조현준.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143-701
Tel_02 2049 6984 E-mail_hjzion@konkuk.ac.kr